

자동차산업

현대/기아차, 8 월 미국 판매점유율 개선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8월 미국 판매 148만대 (-0.2% YoY), SAAR 1,669만대 (+0.7% YoY)

8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148만대 (-0.2% YoY)로 소비심리 개선 지속과 낮은 실업률 환경에도 불구하고, 금리상승 및 off-lease 차량 공급증가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흐름을 보였음. 영업일수는 전년동월과 같은 27일 유지.

SAAR는 1,669만대 (+0.7% YoY) 6개월 연속 YoY 증가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1,700만대 이하에 머물고 있음.

현대차 5.8만대 (+6.0% YoY), 판매점유율 3.9% (+0.2%p YoY)


SUV 판매호조에 힘입어 높은 YoY 판매성장을 실현. 지난 3월 출시한 B-seg SUV 코나가 출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월간판매 (4,500대)를 기록했으며, 투싼 F/L이 18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유지 (11,450대, +17.4% YoY).

싼타페는 8월 신 모델의 소비자 판매가 시작됐으며, 18년 들어 가장 높은 월간 판매를 기록 (11,650대, +1.5% YoY). 9월 이후 구형 모델 재고소진이 완료되고 신 모델 투입이 확대되며 판매확대 및 인센티브 감소 지속 추이를 전망.

기아차 5.4만대 (+1.0% YoY), 판매점유율 3.6% (+0.04%p YoY)

모델 교체가 가까워진 주요 볼륨모델 쏘울의 판매감소 (9,751대, -31.1% YoY)가 두드러졌으나, 18년 중 F/L 출시가 진행된 K5 (10,205대, +44.3% YoY), 쏘렌토 (11,300대, +26.5% YoY), 카니발 (1,699대, +5.3% YoY)의 판매개선으로 YoY 플러스 판매성장을 실현.


그림1 구형 싼타페 현재 지급 중인 대당 인센티브 \$3,750



2018 Hyundai Santa Fe Sport 2.0L Turbo Ultimate SUV	
MSRP:	\$37,215
Incentive:	-\$3,750
Price:	\$33,465
Est. Finance:	\$465/mo*
Est. Lease:	\$425/mo**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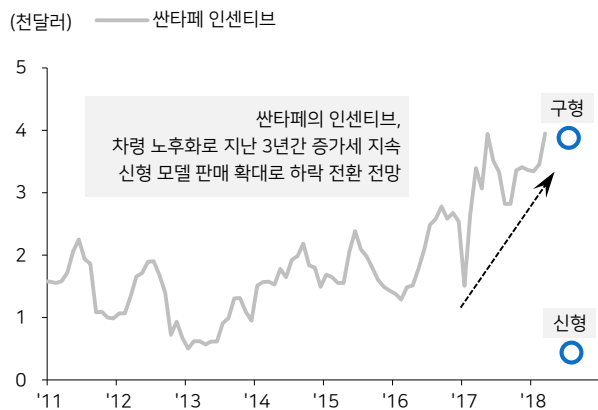
그림2 신형 싼타페 현재 지급 중인 대당 인센티브 \$500



2019 Hyundai Santa Fe Ultimate 2.0T SUV	
MSRP:	\$38,420
Incentive:	-\$500
Price:	\$37,920
Est. Finance:	\$524/mo*
Est. Lease:	\$485/mo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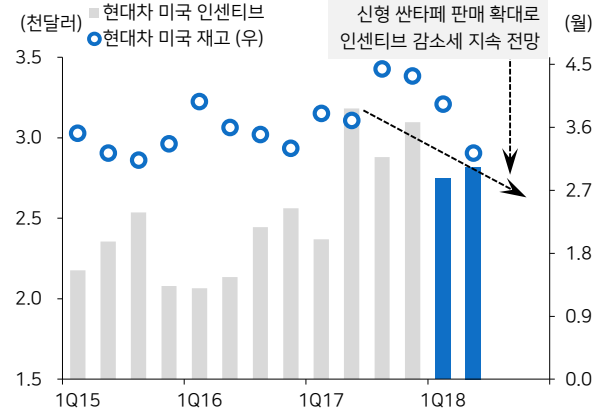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 신형 판매확대로 싼타페 인센티브 하락 전환 전망

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이에 따라 현대차 미국 평균 인센티브 감소세 지속 전망

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9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